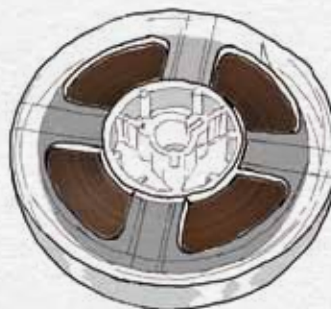


그땐 그랬지...

나는 테이프 붙이는 도사



아득한 옛날 라디오만이 방송매체로 있던 시절.
생방송이 많았고 녹음방송을 위한 매체로
릴플레이를 주조정실로 가져와서



릴플레이어에 스탠바이 시키고
엔지니어가 제 시간에 재생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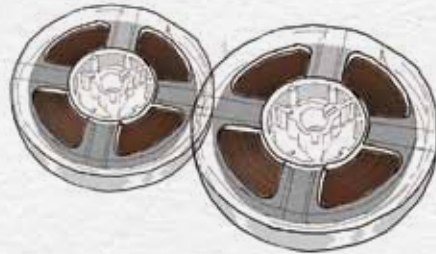
그러나 매번 순조롭게 재생되진 않았다.
릴테이프 자체가 열에 민감하기도 하고

한번 녹음한 릴테이프에 수십번
다시 녹음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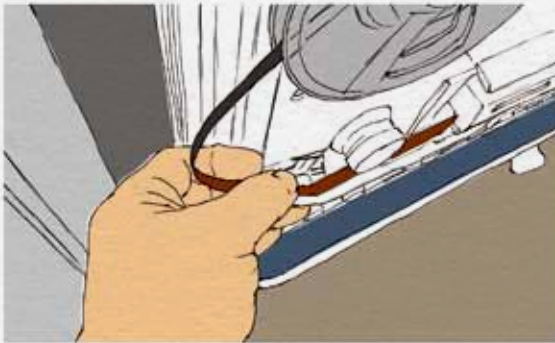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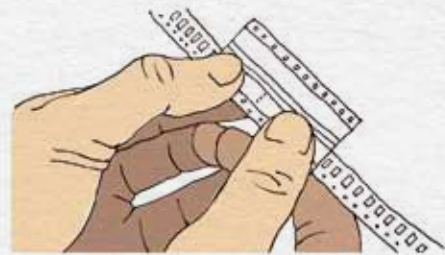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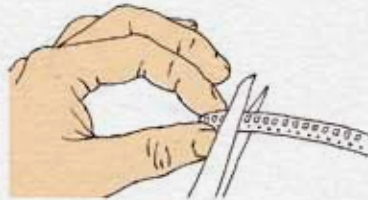




이때 엔지니어의 능력을 평가받는데,
우선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재생 30분에
테이프가 끊어져서 방송이 끊겼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엔지니어는 재발리 릴플레이어로 가서
끊어진 테이프를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해 서로 붙여야 한다.



그리고 끊어진 지점으로 돌려서
다시 재생시켜야 하고,
이때 걸리는 시간은 20초 이내면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고수가 되려면 그 다음과정이 중요하다.

20초가 지나서 남은 시간이 29분 40초인데
30분 분량의 녹음소재가
재생 중인 것이다. 이때 릴플레이어의
재생속도를 제어하는 로브를 잘 조정하여
편성시간에 맞춰 끝낸다.
그럼 여기서 박수가 나온다.

이런 시절이 있었다.

